

보도 일시	2022. 9. 8.(목) 09:00	배포 일시	2022. 9. 8.(목) 09:00
담당 부서	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	책임자	팀장 오세용 (044-203-2049)
		담당자	사무관 최지훈 (044-203-2055)

## 시각장애인도 누리소통망으로 청와대 전경 감상한다 - 문체부,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영상 제작 -

시각장애인도 영빈관부터 녹지원,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춘추관까지 청와대의 다채로운 모습을 화면해설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.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(회장 김영일, 이하 한시련)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와대 화면해설 영상을 제작해 9월 8일(목)부터 문체부 누리소통망(SNS)\*과 한시련 보유 시각장애인 전용 누리집\*\*을 통해 공개한다.

\* 문체부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트위터, 네이버 블로그 등

\*\* ▲ 미디어접근센터 ‘MAC(www.kbumac.or.kr)’, ▲ 모바일 ‘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’,

▲ 재활통신망 ‘넓은마을’, ▲ 자동응답시스템(ARS) 음성정보서비스 등

이번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‘보편적 문화복지’ 실현을 위해 제작했다. 영상에서는 9월 19일(월)까지 열리는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, ‘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’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.

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“국민 품속으로 들어간 청와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시각장애인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디지털 소통을 이어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따로 붙임 영상 주요 장면